

# 선한 목자 예수님께 드리는 9 일기도

2019. 5. 3-11

## 선교의 새로운 추진을 위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원천으로

올해 선한 목자 예수님께 드리는 9 일 기도는 성소의 해 주제와 6 년 동안의 우리의 목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추진”을 위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 디모 1,6).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의 전례 말씀과 함께 교회의 가르침과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말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도록 성경구절을 표기만 하고, 전문을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에 제시된 말씀들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으니, 각 공동체마다 자유롭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1 일(5 월 3 일)

**선교의 새로운 추진을 위해 길,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식별한다.**

#### 도입

길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영성의 중심입니다. 모든 이에게 통합적으로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충실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오 성부님, 저희가 처한 상황과 오늘날 인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수도회가 사목사명의 부르심을 재발견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언제나 더욱더 선교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카리스마에서 선교의 열정을 길어내게 하소서. 이것은 마땅히 식별,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은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개인주의에서 벗어

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필요에 공동체로써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숙고하고 식별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 1 코린 15,1-8, 요한 14,6-14.

### **교부들의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용기 있는 응답과 결정들을 촉구합니다. 시대는 변하였고 우리들의 응답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구조적인 현실들이 요구하는 조직의 새로운 양식에 응답하는 만큼, 복음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나아가서 새로운 현존을 찾도록 여러분을 격려합니다(제 25 회 스페인 수도자 정기모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CONFER) 2018. 11. 13-15, 마드리드)].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다시 말해 제안하고 창안하십시오. 본당, 즉 본당 사람들의 부류, 노동자들, 농민들, 지성인들을 살피고 나서, 그 본당에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본당이 진보하도록 하기 위해 본당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십시오. 말하자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본당을 연구하십시오. 우리가 파견된 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영혼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감각과 마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 왔다.' (요한 10,10 참조) 다시 말해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AAP 1965, 322)

### **숙고와 내면화**

#### **자발적인 청원**

#### **선한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1 번**

인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은 양떼 가운데 항상 계시고자 성체 안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당신은 양들을 기르고 보호하시며, 천상 양우리로 인도해주십니다. 저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와 사랑의 가르침으로 살아갑니다. 양들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랑으로 따릅니다. 오류와 무지의 어둠 속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 진리에서 이끌어주소서. 복음 선포자와 교리교사, 그리고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사도들을 증가시켜 주소서. 저희 마음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 제 2 일(5 월 4 일)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많은 도전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

### 도입

오늘의 주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가를 숙고하도록 제안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그분과 함께라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의 장에서 도전들은 우리에게 다른 대체 방법, 조언들, 협력자들을 찾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 이 찾는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삼위일체 하느님, 저희는 끊임없이 당신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형성되는 여정에서 저희가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협력자들과 사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의 선포가 되살아나기 위해, 그들이 말씀을 맛들이고 저희와 함께 인류를 돌보는데 더욱 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힘을 평신도 양성에 쏟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멘

**성경:** 사도 6,1-7, 요한 6,16-21.

#### 교부들의 말씀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준비나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자'와 '선교사'가 아니라 언제나 '선교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복음의 기쁨 120).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들의 사도직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젊은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양성되고, 본당과 교구와 교회 안에서 건강한 평신도들의 사도직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도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공의회에서 다루었던 주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주된 내용은 사목입니다! 여러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

에서 목자들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AAP 1963, 403).

## 속고와 내면화

### 자발적인 청원기도

#### 선한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2 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인류를 찾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감사 드립니다. 흩어진 양들을 불러모아 길러줄 목자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앞장서 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영원한 빵으로 양육됩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을 당신의 길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며, 연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해주소서. 모든 사람이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이신 당신을 따르게 해주소서. 당신만이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 제 3 일(5 월 5 일)

**선교는 하느님 사랑에서 나오며 역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한다.**

## 도입

오늘의 주제를 통해 선한 목자 예수님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속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우리 안에서 이중의 사랑, 즉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면 사목활동의 효율성에 대해 확신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전할 것입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사명은 성부께서 당신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목적 열정은 저희를 위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써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중심에 머무르신다면 당신 사랑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체험하게 하소서. 이 확신을 통해 저희를 굳세게 해 주소서. 아멘

성경: 사도 5,27 L-32; 40 L-41, 요한 21,1-19.

### 교부들의 말씀

하느님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8) 라고 외치시는 분과 사랑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관상하고, 연민을 느끼고, 타인 앞에 멈춰서 머물기 위해서 친밀감의 시선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의 예술입니다. 동반은 이웃과 친근하게 인사하는 것, 존중과 연민이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눈길은 치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시키며, 매듭을 풀 수 있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 Tallinn-Estônia. 2018. 9. 25).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수녀들은 선한 목자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께 협력하는 만큼 구별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의 수녀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요한 10,14).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생각을 고수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회헌이 사라진다면, 거기에 항상 프로그램이, 즉 빠스도렐레 수녀들의 프로그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를 닮고, 선한 목자에게 협력하십시오.” (AAP 1965, 322)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선한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3 번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죄 많은 양들을 살리시려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 죄도 없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와 견진, 고해와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생명을 저희에게 주소서. 모든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게 하소서!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당신에게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을 당신의 양우리에 다시 모아 들이소서. 당신의 피로 얻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치와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저는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당신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제 4 일(5 월 6 일) - 성령은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지혜와 힘을 채워주신다.**

**도입**

오늘의 주제는 충실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피곤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며, 그분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 추수 밭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깁시다.

**성령청원**

**기도**

사랑하는 목자님, 영혼을 돌보는 사명에서 희생과 자기 비움과 고통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 안에서 병을 겪어낼 때는 저희가 겪은 병고의 체험들 역시 형제들에게 당신을 증거하기 위한 빛과 힘으로 변모됩니다. 그것들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빛입니다. 사목적 돌봄을 풍요롭게 하는 당신 사랑의 힘이 저희의 가난과 허약함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 추수 밭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힘과 당신의 양식에 의지합니다. 아멘

**성경구절:** 사도 6, 8-15, 요한 6, 22-29.

**교부들의 말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의 도구로 변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성령께서 지성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 이주민을 위한 미사, 2018. 7. 6)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았습니까? (...)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순간부터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용감하게 되어 온 세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루카 18,1). (AAP 1961, 339-340)

**속고와 내면화**

**자유로운 청원기도**

## 선한 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4 번

예수님, 당신을 으뜸가는 목자로 흠송합니다. 당신은 교황과 주교, 사제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목자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제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는 그들의 열의에 협력하는 은총을 주시고, 당신이 목자로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는 날 당신의 양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제 5 일(5 월 7 일) - 선한 목자는 우리가 생명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빵이다.**

## 도입

오늘 9 일기도 내용은 직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도 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길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구원사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힘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주님, 저희는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당신의 도움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낸다면 그것들 역시 메마른 것이 아님을 체험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첫 번째 사랑이신 당신께 돌아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한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성장하고, 당신께 대한 소속감, 수도회에 대한 소속감, 사목사명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소속감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 7,51-8,1; 요한 6,30-35.

## 교부들의 말씀

피노 신부님께서 자기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이가 되셨습니다. 자기 방에는 공부하던 의자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자는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쉬려고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늘 돌아 다니셨습니다. 승리의 정신이 여기 있습

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미소를 세상에 가져가는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순교자의 스캔들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폴리시 신부님의 무덤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 복자 피노 폴리시 기념미사, 팔레르모, 2018. 9. 15)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갈바리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갈바리오를 향해 올라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숨을 내쉬고 죽을 때, 예수님을 동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혼들을 위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여는 희생입니다. 결정적인 희생. 가장 위대한 공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흠송하는 것과 영혼들의 유익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AAP 1961, 137)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선한 목자 예수님께**

길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양들을 인자롭게 바라보소서. 당신 복음의 지혜로 저희를 비추시고, 당신 모범으로 굳세게 해주시고, 성체로 길러주시며,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

저희 성소에 따라 기도와 활동으로 교회의 목자들의 가르침과 열정에 온순하게 협력하고, 그들 안에서 당신께 드린 모독을 보속하고자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참된 수도 정신을 주시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처럼 단순하고 현명하며 굳세고 절제하고 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제 머리 위에 거룩한 손을 얹으시어 영성생활과 사도직 생활에서 당신을 본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마침성가**



## 제 6 일(5 월 8 일) - 선한 목자에게 매료된 사람은 사명을 수행하러 나간다.

### 도입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료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포할 것입니까? 참된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제자가 되는 것,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성체는 우리의 빛, 우리의 힘, 우리의 양식입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말씀, 상황들, 사람들과 함께 저희 자신을 대조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저희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성부의 얼굴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징표가 되기 위해,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 사도 8,1b-8, 요한 6,35-40.

#### 교부들의 말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형제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 슬픔, 혐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타인, 교회 공동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리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새로운 추기경들의 직위수여를 위한 공식 추기경 회의, 2018. 6. 28)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빠스또렐라의 삶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리고 천상에 오를 때까지, 천상에 오를 때까지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천상 목자께서 자신의 양들과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명과 비슷한 사명을 수행한 빠스또렐라 수녀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선을 바라고, 최고의 선을 실행하려 노력하십시오.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사십시오. 숨어서 지내고 오직 선을 행해야 할 때만 드러내십시오. 이것입니다(AAP 1957, 163).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선한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5 번

하늘로부터 사랑의 불을 가져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 마음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형제들에 대한 큰 사랑이 타오르게 하소서. 저희를 당신의 사도직에 참여시켜 주소서. 저희 안에 사시어 말과 고통, 사목활동과 훌륭한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당신을 빛내게 하소서.

온순하고 충실한 양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합당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가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천상 목자님, 오시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어서 빨리 하나의 양떼와 한 목자만이 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제 7 일(5 월 9 일) - 생명의 빵은 우리가 견고하게  
선한 목자를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도입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지지와 현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체는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복음의 '온기를' 더 필요로 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웁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주 예수님, 사목 사도직에 있어 성령의 인도에 저희를 맡기는 것이 근본적이며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 당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 저희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복음화의 필요로움과 사목적 애덕의 필요로움이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부께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에 달려있음을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경 사도 8,26-40, 요한 6,44-55

## 교부들의 말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가기 위해 걸어가시는 데에 지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희망의 불을 켤 것입니까?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 것입니까? 용기 있고 굳센 증거자들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 장소에 도달하시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과 마지막 인사, Lima - Base Aérea Las Palmas, 2018. 6. 21)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한 15 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장해야 할 땅을 보십시오! 추수 밭이 황금으로 물들었습니다! 빠스또렐라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정신을 지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본당과 영혼들을 위해서 정신, 마음, 의지가 본당과 영혼들을 향하도록 양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처음에는 수도자로서 그리고 나서 "빠스또렐레" 수도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AAP 1958, 165b)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예수 성심께 코론치나 2 번

천상 스승 예수님, 성체를 주신 큰 은혜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물며, 미사 성제 때에 당신의 수난을 새롭게 하고, 영성체 때에는 당신을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성심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길게 하소서. 이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매일 방문하고, 거룩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례하고 이해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주 영성체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 마침성가

**제 8 일(5 월 10 일) - 선한 목자와의 만남은 변화시키고 파견한다.**

## 도입

선한 목자 예수 9 일기도 여덟째 날 독서의 말씀은 성 바오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이미 걸은 길

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동시에 오늘날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응답하도록 노력합니다.

## **성령청원**

###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이 모든 것 다음에, 구체적인 신앙을 지닐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단순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저희는 참된 사목적 새신, 즉 "더욱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성 바오로처럼 생각, 감정, 말, 행위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희의 삶을 당신께 봉헌하며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 9,1-20, 요한 6, 52-59

### **교부들의 말씀**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의 안전한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주 타인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난 후에, 마냥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과 불안정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가야 합니다. 사울의 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나서 성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하나니아스는 두려워서 망설여졌지만, "예, 주님!"하고 대답합니다. (...) 끝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단력 있고 확고한 사람인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없이 떠납니다. 순명을 받아들이고, 인내롭게 되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부끄러워하거나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순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 강론. 몰페따 항구에서, 2018. 4. 20).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영혼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모든 능력, 즉 지성, 의지, 감정에 스며들도록, 전 존재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본당에서 많은 불꽃들, 켜져 있는 불꽃, 켜 있는 감실의 등불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빠스또렐레"가 무엇을 말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AAP 1958, 282).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예수성심께 5 번

천상 스승 예수님, 봉헌생활로 불러주심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복음적 완덕의 길로 불러주시고, 친히 그들의 모범과 도움과 값음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심이여, 수도자들의 성소를 증가시켜 주시고, 그들이 복음적 권고를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교회의 가장 향기 높은 꽃밭이 되고, 당신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사도직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 마침성가

**제 9 일(5 월 11 일) - 새 생명을 낳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 도입

9 일기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과 사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숙고하고 기도합니다. 충만한 생명의 원천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온유함과 연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지속되기 위해서 쇠신된 예수님과과의 관계가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그분의 모습과 닮도록 합니다.

### 성령청원

#### 기도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지구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새로운 선교의 길을 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난함과 함께 일하는 용기가 당신의 호소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자주 사목 사명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저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새 생명의 샘이신 당신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성경:** 사도 9,31-42, 요한 6,60-69.

### 교부들의 말씀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시며 공허한 관계로부터 그리고 비인격적인 분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희망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살도록 주어진 곳, 매일 매일 그 모퉁이에서 누룩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하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작은 온유함과 연민을 발휘할 줄 아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눈먼 이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이들이 듣게 되도록(참조 루카 7,22) 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베푸는 모든 것들이 부활을 노래하는 곳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강론과 마지막 인사, Lima - Base Aérea Las Palmas, 2018. 6. 21)

###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선을 위해 일하는 만큼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일한 것입니다. 직무, 본당 사도직은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은 거룩한 성삼의 감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주님께서 계시실 때,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이 계시실 때, 외부에 무엇을 반사합니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화되는 만큼 여러분이 하는 본당 사도직이 유익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AAP 1962, 424).

### **속고와 내면화**

### **자유로운 청원기도**

### **선한 목자 예수께 코론치나 5 번.**

하늘로부터 사랑의 불을 가져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 마음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하고자 하는 열망과 형제들에 대한 큰 사랑이 타오르게 하소서. 저희를 당신의 사도직에 참여시켜 주소서. 저희 안에 사시어 말과 고통, 사목활동과 훌륭한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당신을 빛내게 하소서.

온순하고 충실한 양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합당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가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천상 목자님, 오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어서 빨리 하나의 양떼와 한 목자만이 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마침성가**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 관구의 알비나 보시오 수녀님과  
수지 마라 발린가사 데 알메이다 수녀님께서 9 일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